

기혼 여성의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Parent Residence Type and Connubial Bliss in Married Woman

정유림*, 한삼성** 정성화**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Yu-Rim Jeong(jyr3127@naver.com)*, Sam-Seong Han(sshan@dhu.ac.kr)**,
Seong-Hwa Jeong(jeongsh@dhu.ac.kr)**

요약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부모 거주형태와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및 결혼행복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성가족패널(KLoWF)조사 6차년도(2015-2016)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2,120명의 기혼 여성을 선정하였으며, 부모 거주형태와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및 결혼행복감을 측정하였다. 단변량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 거주형태와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및 결혼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부모 거주형태가 근거리에서 거주하거나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고 결혼행복감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부모 세대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인 경향이었다. Sobel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부모 거주형태에 따라 결혼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보편화된 핵가족 사회에서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는 정책적 계획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심어 : | 기혼여성 | 부모 거주형태 | 결혼행복감 | 부부활동 | 가족 부양인식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residence type and connubial bliss mediated to Korean married women. A total of 3,851 married women were selected from the database of the Fourth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KLoWF) in 2015-2016. In univariate analysi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arents residence type, couple activity, family care and connubial bli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reover, when the parents residence type is short distance, connubial bliss is higher, couple activity is more active and family care is more friendly attituded. By the result of sobel test, parents residence type was indirectly influenced on connubial bliss mediated to couple activity and family care. However, parents residence type was no directly influenced on connubial bliss mediated.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ill help design policy pla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and family members in a universal nuclear family society.

■ keyword : | Married Women | Parents Residence Type | Connubial Bliss | Couple Activity | Family Care |

I. 서론

과거 농경사회 중심의 확대 가족제에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핵가족제로 보편화되었다. 자녀 세대는 결혼 후 부모 세대와 분가 구성원 형태로 변화되어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유대관계 및 소통의 단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림, 정성화, 한삼성[1]의 연구에서도 핵가족제가 되면서 부부간 대화단절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각해져 스트레스 및 우울의 유병율이 증가하며, 더 나아가 자녀 양육환경에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고 여성은 부모 부양과 가사 분담의 책임역할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장남이 아닌 모든 자녀 및 사회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2], 이는 부모 세대와의 거주거리와 관련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함께 볼 수 있다[3].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보고되고 있다[4]. 윤소영, 정유희[5]의 연구에서 자녀 양육 등의 가사부담이 기혼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임중호[6]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이 경제활동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 기혼 여성들은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변화되었고 부모 세대와의 거주형태도 변화되었다. 배호중과 한창근, 양은모[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세대와의 근거리 거주로 기혼 여성들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여 자녀 세대의 필요로 인해 부모 세대간의 거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핵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중요한 요인이다. 핵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 상호간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때는 서로가 떨어져 일하는 시간보다 함께 지내는 자유시간 동안이며, 가족간의 이 시간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8].

기혼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가족, 시댁,

친구 등의 다양한 광범위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한다[9]. 이러한 광범위적인 관계에서 여성의 가족간 정서적 유대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다. 양소남[10]의 연구에서도 가족간 정서적 유대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11] 기혼여성에게 있어 배우자는 인격적, 심리적 보완자로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자아로[12] 배우자와의 관계는 기혼 여성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육과 가사 분담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배우자 및 가족간의 시간도 제약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세대 간 거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독립성은 보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서로에게 의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3]. 거주거리에 따른 생활은 세대 간 교류적, 기능적 차이로[13-15] 세대간 양방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 세대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노동시간 분담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동거하는 경우 부모부양에 따른 가사 부담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4].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은 본인과 남편의 부모가 도보로 도달 가능한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높았고[4], 경제적 요인으로 자녀 세대들은 시가 혹은 처가와 근접 거주로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3]. 그러나 부모와의 근접 거주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통한 만족감을 높이려는 선택일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거주형태에 대한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결혼행복감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부모 세대와의 거주 거리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모 세대와 거주거리가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거주형태가 기혼 여성의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표본추출단위(PSU)인 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층화기준에 근거해 나열되었다.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내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2015-2016)자료에서 조사대상자 중 기혼 여성이고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3,85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편화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로 부모 세대와의 거주 거리는 기혼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구조모형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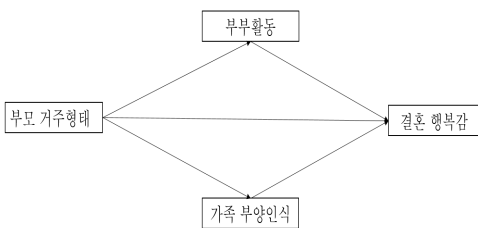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1 부모 거주형태

부모 거주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먼저 본인 부모와 시댁 부모의 생존 여부 문항에서 “두 분 모두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두 분 모두 계신다’, ‘② 아버님/시아버님만 계신다’, ‘③ 어머님/시어머님만 계신다’, ‘④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에서 ‘④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를 응답한 경우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두 분 모두 계신다, 아버님/시아버님만 계신다, 어머님/시어머님만 계신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동거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에 대해 각각 “두 분 중 한분이라도 귀댁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②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 ‘③ 둘 다 아니다’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동거’로 재범주화 하여 사용하였으며, ‘둘 다 아니다’의 문항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의 문항과 일치하여 제외하고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인(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에 대해 각각 “얼마나 되는 거리에 살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으로 ‘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② 차로 30분 이내 거리’, ‘③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④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⑤ 차로 2시간 이상 거리’에서 ①, ②를 ‘근거리’로 ③, ④, ⑤를 ‘원거리’로 재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의 거주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로 나누어진 문항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정의하여 활용하였다.

표 1. 부모 거주형태

친정 부모	시댁부모	정의
없다	없다	제외
없다	동거	동거
없다	근거리	근거리
없다	장거리	장거리
장거리	없다	장거리
장거리	근거리	한쪽 근거리
장거리	동거	동거
장거리	장거리	장거리
근거리	없다	근거리
근거리	장거리	한쪽 근거리
근거리	근거리	근거리
근거리	동거	동거
동거	장거리	동거
동거	근거리	동거
동거	동거	동거
동거	없다	동거

2.2 결혼행복감

결혼행복감은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 느낌”은 ‘매우 불행하다’에서 ‘매우 행복하다’ 순으로 10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행복함을 의미한다.

2.3 부부활동

지난 한 달간 부부가 같이 활동을 얼마나 하는가는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 하기”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5점 리커드 척도(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한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로 구성하여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를 1점, ‘한달에 한번’을 2점, ‘2주에 1번 정도’를 3점, ‘일주일에 1번 정도’를 4점, ‘일주일에 2번 이상’을 5점으로 재 범주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활동 횟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4 가족 부양인식

가족 부양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 4점 리커드 척도(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조금 그렇다’를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재 범주화하여 합산한 변수가 16에 가까울수록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2.5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30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재 범주화 시켜 구분하였다. 일자리 여부는 ‘유, 무’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미혼인 자녀 여부는 미취학 자녀 수, 초중

고 자녀 수, 미혼인 자녀 수 문항에서 1명 이상인 경우 ‘있다’, 0명인 경우 ‘없다’로 재 범주화 하였고, 기혼인 자녀 여부 또한 1명 이상이 있는 경우 ‘있다’, 0명인 경우 ‘없다’로 재 범주화 하여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 및 부부활동, 가족부양 인식의 차이를 보기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들 간 단변량 분석 후 고려된 통제변수를 보정한 후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 및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대한 매개의 유의성을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고려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는 전체적으로 ‘원거리’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학력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01$), 일자리가 있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현재 건강상태는 매우 좋을수록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근거리 또는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태가 통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

N(%)

	Total	부모 거주형태				P값
		동거	근거리	원거리	한쪽 근거리	
전체	3,851	647(16.8)	547(14.2)	1,963(51.0)	694(18.0)	
연령						
<30	36	13(36.1)	10(27.8)	7(19.4)	6(16.7)	
30-39	675	78(11.6)	136(20.1)	279(41.3)	182(27.0)	
40-49	1,795	209(11.6)	265(14.8)	927(51.6)	394(21.9)	<0.001
50-59	987	231(23.4)	109(11.0)	546(55.3)	101(10.2)	
≥60	358	116(32.4)	27(7.5)	204(57.0)	11(3.1)	
학력						
≤중졸	511	164(25.3)	57(10.4)	260(13.2)	30(4.3)	<0.001
고졸	1,653	268(41.4)	218(39.9)	872(44.4)	295(42.5)	
≥대졸	1,687	215(33.2)	272(49.7)	831(42.3)	369(53.2)	
일자리 유무						
유	2,247	428(19.0)	326(14.5)	1,110(49.4)	383(17.0)	<0.001
무	1,604	219(13.7)	221(13.8)	853(53.2)	311(19.4)	
현재 건강상태						
매우 나쁨	19	4(21.1)	2(10.5)	10(52.6)	3(15.8)	0.001
나쁨	267	68(25.5)	36(13.5)	126(47.2)	37(13.9)	
보통	1,229	234(19.0)	167(13.6)	614(50.0)	214(17.4)	
좋음	2,030	308(15.2)	288(14.2)	1,052(51.8)	382(18.8)	
매우 좋음	306	33(10.8)	54(17.6)	161(52.6)	58(19.0)	
미혼인 자녀						
유	3,467	540(15.6)	505(14.7)	1,761(50.8)	661(19.1)	<0.001
무	384	107(27.9)	42(10.9)	202(52.6)	33(8.6)	
기혼인 자녀						
유	668	194(29.0)	69(10.3)	367(54.9)	38(5.7)	<0.001
무	3,183	453(14.2)	478(15.0)	1,596(50.1)	656(20.6)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기혼인 자녀는 없는 경우 근거리 또는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

족 부양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행복감은 전체적으로 6.90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혼행복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학력에 따른 결혼행복감은 학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현재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명	결혼행복감	P값	부부활동	P값	가족 부양인식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851	6.90±1.56		7.66±2.78		10.95±1.70	
연령							
<30	36	7.72±1.39a		9.56±3.57a		10.81±2.21ab	
30-39	675	7.26±1.45a	<0.001	8.60±2.92a	<0.001	10.74±1.73b	<0.001
40-49	1,795	6.90±1.56b		7.78±2.77b		10.93±1.70b	
50-59	987	6.74±1.57b		7.18±2.61c		11.01±1.65a	
≥60	358	6.61±1.64c		6.39±2.10d		11.31±1.67a	

나타났으며($P<0.001$), 기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활동은 전체적으로 7.66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부부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활동을 자주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학력에 따른 부부활동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부부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현재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부부활동을 자주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1$),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P=0.021$). 기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P<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부양인식은 전체적으로 10.9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족 부양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부양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학력에 따른 가족 부양인식은 학력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3$). 현재 건강상태는 매우 좋은 경우 가족 부양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8$), 기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부양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P<0.001$).

3.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

양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 정도는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 모두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7.11,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7.09, 동거하는 경우 6.84,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6.80으로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가 모두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부부활동은 전체적으로 7.66으로 나타났다.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부부활동의 차이는 동거인 경우 7.39, 근거리 8.43, 원거리 7.27,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8.40으로 부모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가장 자주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P<0.001$).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가족 부양 인식은 전체적으로 10.95로 나타났다.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가족 부양인식은 동거인 경우 11.26, 근거리 10.95, 원거리 10.88,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10.88로 동거하는 경우 가족 부양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4.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0.414$, $P<0.001$, 고려된 변수들과 부부활동의 변동을 12.1%의 설명하였다($R^2=0.121$).

고려된 통제변수들을 모두 보정하였을 때 부모 거주형태가 동거에 비해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표 4.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

	명	결혼행복감		F	P값	부부활동		F	P값	가족 부양인식		F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851	6.90±1.56				7.66±2.78				10.95±1.70			
부모 거주형태													
동거	647	6.84±1.64b	9.45	<0.001	7.39±2.72b	46.45	<0.001	11.26±1.70a	8.66	<0.001	10.95±1.69b		
근거리	547	7.11±1.53a			8.43±3.13a			10.88±1.73b					
원거리	1,963	6.80±1.54b			7.27±2.49b			10.88±1.58b					
한쪽 근거리	694	7.09±1.55a			8.40±3.05a								

a,b The same letter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95, P=0.470, P=0.781). 부부활동은 자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가족 부양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을수록 결혼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고려된 통제변수들 중 연령, 학력, 현재 건강상태, 미혼인 자녀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하에 비해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인 경우만 유의하게 결혼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281, P=0.071, P=0.061, P=0.045). 학력은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결혼행복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대졸 이상인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34, P=0.094).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77). 현재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경우에 비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행복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P<0.001, P<0.001, P<0.001). 미혼인 자녀 여부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13). 기혼인 자녀 여부는 기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기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0).

표 5.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결혼행복감			
	b	SE	β	P값
부모 거주형태				
동거	1			
근거리	0.074	0.087	0.017	0.395
원거리	-0.019	0.068	-0.006	0.781
한쪽 근거리	0.060	0.083	0.015	0.470
부부활동	0.145	0.009	0.258	<0.001
가족부양인식	-0.271	0.251	-0.066	<0.001

연령

<30

1

30-39	-0.271	0.251	-0.066	0.281
40-49	-0.451	0.249	-0.144	0.071
50-59	-0.482	-0.258	-0.135	0.061
≥60	-0.554	0.276	-0.103	0.045
학력				
≤중졸	1			
고졸	-0.043	0.091	-0.014	0.634
≥대졸	0.164	0.098	0.052	0.094
일자리 유무				
유	1			
무	0.001	0.049	<0.001	0.977
현재 건강상태				
매우 나쁨	1			
나쁨	0.947	0.348	0.154	0.007
보통	1.397	0.339	0.417	<0.001
좋음	1.538	0.339	0.492	<0.001
매우 좋음	1.648	0.348	0.285	<0.001
미혼인 자녀				
유	1			
무	0.014	0.058	0.004	0.813
기혼인 자녀				
유	1			
무	-0.204	0.094	-0.049	0.030
F-value	30.413			
P-value	<0.001			
Adjusted R2	0.121			

5.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의 매개효과

[그림 2]는 Sobel Test를 통해 구해진 각 변수들 간의 유의한 매개 경로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다.

독립변수로 고려된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것 보다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음(-)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것 보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것 보다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부모 거주형태 중 근거리는 부부활동을 통하여 결혼행복감에 양(+)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는 부부활동을 통하여 결혼행복감에 음(-)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통하여 결혼행복감에 양(+)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 거주형태 중 근거리는 가족 부양인식을 통하여 결혼행복감에 음(-)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거리 역시 가족 부양인식을 통하여 결혼행복감에 음(-)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음(-)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6]은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부모 거주형태 중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0.141)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양(+)의 간접효과(0.086),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24)를 미쳐 양(+)의 총 효과(0.203)를 나타내었다.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음(-)의 직접효과(-0.109)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54),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35)를 미쳐 음(-)의 총 효과(-0.198)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0.106)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양(+)의 간접효과(0.070),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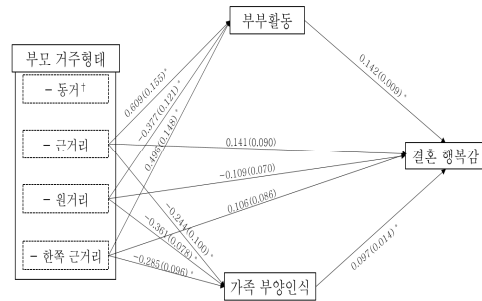


그림 2. 매개효과

† Reference category, * P<0.001

(-0.028)를 미쳐 양(+)의 총 효과(0.148)를 나타내었다.

총 효과의 크기로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부모 거주형태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인 경우 결혼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부모 세대와 원거리에 거주하며 부부활동을 적게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며 부부활동을 자주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

표 6.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형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effect(SE)
근거리	→ 부부활동	0.609(0.155)*	-	0.609
	→ 가족 부양인식	-0.244(0.100)*	-	-0.244
	→ 결혼 행복감	0.141(0.090)	부부활동 0.086* 가족 부양인식 -0.024*	0.203
원거리	→ 부부활동	-0.377(0.121)*	-	-0.377
	→ 가족 부양인식	-0.361(0.078)*	-	-0.361
	→ 결혼 행복감	-0.109(0.070)	부부활동 -0.054* 가족 부양인식 -0.035*	-0.198
한쪽 근거리	→ 부부활동	0.496(0.148)*	-	0.406
	→ 가족 부양인식	-0.285(0.096)*	-	-0.285
	→ 결혼 행복감	0.106(0.086)	부부활동 0.070* 가족 부양인식 -0.028*	0.148

* P<0.001

식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Sobel Test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세대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친정 부모 또는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부모와의 거주형태와 관련이 있고[16], 학력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4] 부모 세대와의 동거는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지미와 차은영[17]의 연구를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져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 거주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행복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현재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미혼인 자녀는 없는 경우, 기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활동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직업은 없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는 높을수록,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인 자녀는 없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현재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기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인식이 높았다. 이는 20-30대가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여봉[18]의 연구와 일치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들과 모두 일치하였다[19][20].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결혼행복감도 높고 부부활동도 자주하였는데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안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21]. 남편과의 관계 즉, 배우자 지지는 결혼에 대한 행복감과 같은 맥락으로[2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23],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24]. 그러나 미혼인 자녀는 없는 경우, 기혼인 자녀는 있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인 자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반면, 기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여성들은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소통 및 지지가 지속됨에 따라 결혼행복감이 높아진다. Orthner[25]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은 정신적 안정과 결혼행복감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거주 거리가 근접할 경우 세대 간 접촉과 사회적 지지교환을 활성화 시킨다는 연구와 유사하다[26][27].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28] 부모 세대가 돌봄 수혜자로 변화되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 기혼 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돌봄 수혜자로서 부모 세대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를 하는 실정이다.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부부활동 또한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봄 기관 보다 믿고 안심할 수 있어 부모 세대와 근접거리에 거주한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29].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행복감과 부부활동의 결과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관계가 기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모 거주형태에 따른 부양인식은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경우 부양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임박한 가운데 노후 설계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24]를 바탕으로 자녀 세대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 요구를 받으면서 자녀 돌봄과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유경[2]의 연구에서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모든 자녀와 사회로 확대 되었으며, 오늘날 세대 간 근거리 거주는 부모 부양뿐만 아닌 자녀 돌봄의 연장선이라고 한다[3].

본 연구의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력과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0.141)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양(+)의 간접효과(0.086),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24)를 미쳐 양(+)의 총 효과(0.203)를 나타내었다. 직접효과에 비해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총 효과가 결혼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결혼행복감에 음(-)의 직접효과(-0.109)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54),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35)를 미쳐 음(-)의 총 효과(-0.198)를 나타내었다. 직접효과에 비해 부부활동과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총 효과가 결혼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세대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세대는 필요로 인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양방적 관계는 기혼 여성의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에 양(+)의 직접효과(0.106)와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양(+)의 간접효과(0.070),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음(-)의 간접효과(-0.028)를 미쳐 양(+)의 총 효과(0.148)를 나타내었다. 직접효과에 비해 부부활동을 매개로 한 총 효과가 결혼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 또한 가족과의 지시나 유대관계가 기혼 여성들의 결혼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모 세대가 근거리에서 거주하거나 한쪽이라도 근거리에서 거주할 때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한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하여도 결혼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은숙과 김금환[3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맞벌이 부부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므로 부모 거주형태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연구로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배우자의 직업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모 거주형태를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로 분류를 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세부 층화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산업이 발달되면서 점차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적어짐에 따라 자녀 양육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기혼 여성들의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양방적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과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을 매개로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KLoWF) 조사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 및 부부활동, 가족 부양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단변량 분석 후 직·간접적인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적용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 부부활동 및 가족 부양인식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 거주 형태가 근거리에서 거주하거나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고 부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가족 부양인식은 부모 세대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인 경향이었다.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총 효과의 크기로 부모 거주형태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활동을 자주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인 경우 결혼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부모 세대와 원거리에 거주하며 부부활동을 적게 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 중 한쪽이라도 근거리에 거주하며 부부활동을 자주하고 가족 부양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부모 세대와 근접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의 원활한 관계와 지지로 기혼 여성의 결혼행복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기혼 여성의 남편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결혼행복감을 매개로,” 한국콘텐츠학회, Vol.18, No.12, pp.263-271, 2018.
- [2] 김유경,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화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 [3] 남보람, 최희정, “세대 간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정신 및 신체 건강: 부모 연령, 성인자녀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 Vol.23, No.2, pp.111-131, 2018.
- [4] 이경곤, 성효용, “부모와의 근거리 거주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pp.129-151, 2017.
- [5] 윤소영, 정유희, “핵가족 부부의 가족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자녀 학령기 가족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Vol.1, No.1, pp.79-95, 2003.
- [6] 임종호,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 Vol.14, No.5, pp.132-143, 2014.
- [7] 배호중, 한창근, 양은모,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Vol.37, No.2, pp.5-40, 2017.
- [8] 윤소영, 정유희, “핵가족 부부의 가족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자녀 학령기 가족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Vol.1, No.1, pp.79-95, 2003.
- [9] 김대명, “생활사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2, pp.113-131, 2014.
- [10] 양소남,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03-126, 2011.
- [11] 정유림, *기혼 여성의 남편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결혼행복감을 매개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2] G. B. Spanier,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38, No.2, pp.15-28, 1976.
- [13] F. Bucx, F. Van Wel, T. Knijn, and L. Hagendoorn,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0, No.1, pp.144-156, 2008.
- [14] H. Karsten,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6, No.1, pp.157-173, 2007.
- [15] 김주희,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가족과 문화*, Vol.21, No.4, pp.95-118, 2009.
- [16] 최유석, “노인의 거주형태와 경제적 지원-기혼여성의 부모, 시부모의 비교,” *한국인구학회*, Vol.39, No.1, pp.59-84, 2016.
- [17] 성지미, 차은영,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논집*, Vol.24, No.1, pp.97-124, 2001.
- [18] 이여봉,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회*, Vol.33, No.1, pp.130-131, 2010.
- [19] 장문선, 김영환,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Vol.22, No.2, pp.399-414, 2003.
- [20] 서수경, 이정덕,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Vol.29, No.2, pp.199-215, 1991.
- [21] 최효식, 윤혜옥, 연은모,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태도 간 단기 종단

연구.” 열린유아교육, Vol.21, No.3, pp.253-279, 2016.

[22] 이화진, 서은경, 정유림, 남인숙, 한삼성, “기혼직장여성의 가족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9, No.2, pp.69-79, 2015.

[23] 김효민, 박정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Vol.31, No.3, pp.125-140, 2013.

[24] P. T. Davies and F. M. Cummings,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Journal Psychological Bulletin, Vol.116, No.3, pp.387-411, 1994.

[25] Dennis K. Orthner,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37, No.1, p.91, 1975

[26] C. H. Mulder and M. J. Meer, “Geographical distances and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15, No.4, pp.381-399, 2015.

[27] 정유림, 정성화, 유왕근, 한삼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 Vol.11, No.2, pp.93-103, 2017.

[28] 김승용, 정미경,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 Vol.11, No.5, pp.67-96, 2006.

[29] 박영신, 박영자, 남인순,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 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 Vol.23, No.3, pp.409-449, 2017.

[30] 최은숙, 김금환, “기혼직장여성의 부부갈등이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 Vol.9, No.1, pp.156-177, 2017.

저 자 소 개

정 유 림(Yu-Rim Jeong)

정회원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대구한대의대학교 일반대학원

〈관심분야〉 : 건강증진, 여성건강, 모자보건 등

한 삼 성(Sam-Sung Han)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학,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

정 성 화(Seong-Hwa Jeong)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보건통계학,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